

현대불교신문사와 시외세계사가 선시의 새로운 해석과 현대선시 부흥을 기치로 걸고 공동 제정한 '이상시문학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이승훈 시인(한양대 명예교수)이 선정됐다. '이상시문학상' 선정위원회는 지난 5월 이상(賞)의 제정을 선포한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 8월 26일 코리아나호텔의 한 식당에서 최종심사를 해 선정자를 확정했다. 첫 수상자로 선정된 이승훈 시인에게 수상소감과 이상(李箱) 시의 계승 문제 등을 물었다.



■ 대담-제1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 이승훈 시인

“시 쓰는 행위 자체가 禪입니다”

Q 첫 수상자라는 것이 영광과 부담을 함께 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A 그동안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상시문학상'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상입니다. 내가 이상의 시를 처음 만난 것은 고교 시절이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이상의 '아침'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니다. 그때까지 읽은 시들은 김소월, 청록파 등의 시였고 이상의 시는 이런 시들과는 다른 세계를 다른 형식으로 노래하고 특히 그가 '아침'에서 노래한 식민지 시대 병든 청춘의 내면은 당시 어둠된 가정환경과 우울한 사춘기의 저의 내면과 통했기 때문이죠. 폐결핵에 시달리는 황폐한 내면을 노래하는 이 시의 후반에는 '코 없는 밤'은 다시 오지 않을 듯이 아침 햇살이 비친다는 시행이 나오고 이 '코 없는 밤'은 그 후 내 시의 화두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은 내 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면을 노래한 그의 시는 한 마디로 자아 탐구의 세계이고 이게 현대성과 통합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한 세계 역시 자연 참미나 현실 비판이 아니라 자아 찾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의 시가 보여주는 실험성, 전위성, 아방가르드 정신입니다. 아방가르드는 전통적 미학을 부정하고 언제나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고 나 역시 45년 동안 그런 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의 이름으로 받는 상은 의미가 크고 영광입니다.

Q 선생님께서는 올해로 등단 45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간 쉼 없이 시를 쓰고 연구해 왔는데 시란 무엇이냐고 생각하시는지요?

A 나는 고교 시절에 서정시를 끝내고 등단 후 특히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자아 찾기가 화두였죠. 따라서 나에게 시는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이런 자아 찾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동기로 하죠. 그런 점에서 나의 경우 시는 자아를 찾아가는 도구였습니다. 45년 동안 이런 자아 찾기는 초기엔 자아 찾기, 중기엔 자아 소멸, 후기엔 자아 부조로 발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나는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나간 셈이고 후기에 깨달은 건 나는 없고 없는 것도 아니라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중도, 불이(不二) 사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나는 시를 쓴 게 아니고 시를 쓰면서 자아가 소멸하는 과정, 아니 자아 불이와 만난 셈입니다. 결국 시쓰기는 마음을 비우는 행위이고 그런 점에서 수행이고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자아도 없고 대상도 없고 언어도 없는 시쓰기, 자칭 '영도의 시쓰기'를 생각하고 시론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쓰기는 목적도 방향도 의도도 무슨 의미도 없이 그저 쓰는 행위만 있는 시쓰기이고 이런 작업을 통해 자아 해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한 마디로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놀고 그런 무아의 세계가 선과 통합니다. 시는 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선이 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45년 동안 시를

쓰며 깨달은 건 시는 없다는 생각하고 시가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문단의 흐름은 서정시가 주류지만, 실험적인 시들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문학이 연구가 아닌 창작의 계승 차원에서는 그다지 활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인, 교수, 이론가로서 내가 관심을 둔 분야는 한국 현대시, 특히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시의 문제였고 그런 문제를 다룬 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예컨대 '모더니즘시론', '포스트모더니즘시론', '한국모더니즘시론', '한국현대시론사', '현대시의 종말과 미학' 등의 저서가 그렇죠. 이상이 보여주는 세계는 모더니즘이 아니라 아방가르드 정신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 현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모더니즘은 온건하고 아방가르드는 과격합니다. 전자가 제도권 문화를 수용하면서 반전통적인 미학을 추구한다면 후자는 제도권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죠. 모더니즘이 시와 일상을 분리하고 지적 특수성을 강조한다면 아방가르드는 시와 일상의 경계를 해체합니다. 문예사조적인 면에서 아방가르드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상시의 계보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그때의 내용을 참고하면 1930년대의 이상은 1950년대의 김춘수, 김수영, 조항 등으로 계승되고 1960년대의 김영해, 이승훈, 오규원 등으로 계승되고 1980년대의 이성복, 황지우, 박남철, 최승호 등으로 계승되고 1990년대의 송찬호, 김연희, 박상순, 박찬일 등으로 계승되고 21세기 신인들은 대체로 문예 의식이 있는 시인들은 이상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합니다. 특히 선시(禪詩) 계열에 드는 조오현 스님, 송준영 같은 시인들은 선과 아방가르드의 회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시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고 역사는 차이이고 따라서 이상시의 계보 역시 이런 차이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전통 서정시가 주류인 우리 시단에선 이런 시인들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시는 언제나 의로운 소수가 하는 작업입니다.

Q 이상의 시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 일까요?

A 이상의 시는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는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의미에 절망하고 삶에 절망하고 이런 절망이 풍자와 유머와 유희의 세계를 낳습니다. 한 마디로 절망의 유희죠. 사실 현대시는 무슨 도덕적 진리나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삶의 미세한 구석을 보여주고 이런 보여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리와 만납니다. 그런 진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예술이 그렇죠. 우리 시인들은 너무 많이 많은 게 탈입니다.

Q 아방가르드 문학의 계승과 현대 선시의 계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계승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시인들의 의식의 문제이고 아방가르드와 현대 선시의 문제는 21세기 우리 시의 화두입니다.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한 취지가 아방가르

드와 선의 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선시 혹은 선적인 취향의 시들이 보여주는 한계는 이른바 현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고려 시대나 이조 시대 선승들이 노래한 투로 꽃이니 나무니 고요니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상투적인 시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디로 삶의 냄새가 없는 죽은 시들입니다. 물론 나는 선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방가르드가 위대한 반칙의 세계라면 선 역시 위대한 반칙의 세계, 곧 일상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 질서, 법, 규칙을 깨는 세계이고 이런 반칙의 세계가 깨달음과 통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이런 반칙을 모르고 대체로 규칙, 정형, 주류를 추종합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가 말했듯이 예술은 축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반칙의 위치에서 득점하기 때문이죠.

나는 최근에 무산 오현 스님의 시집을 다시 읽고 '조오현 시조의 실험성' (시와 세계, 2008, 여름화)이라는 제목으로 평론을 발표했습니다. 내가 읽은 바로는 오현 스님의 시는, 특히 산문시는 비단과 칼, 시와 선의 경계가 해체되는 세계이고 나아가 일상의 세계도 해체됩니다. 한 마디로 선이 녹아 시가 되는 경지죠. 이런 시는 선의 도구가 아니고 한편 선이 시의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이 오현 스님의 실험성, 전위성, 아방가르드 정신입니다. 현대 선시의 현대성은 이런 전위성과 선불교의 중도, 불이 사상의 회통을 요구합니다.

Q 지난해 한양대학교에서 정년 퇴직 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지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A 교수라는 직업이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강의 부담, 연구 부담, 행정적 잡무 등 나처럼 소심한 인간에게엔 억압이 심했어. 은퇴 후 좋은 건 이런 억압에서 벗어난 점이지. 이전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 싶어요. 노는 게 최고죠. 시는 결국은 언어 유희고 유희는 일상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 해방의 공간입니다. 인간은 일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어린 아이들처럼 하루 종일 놀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해질 무렵 아파트 거실 바닥에 앉아 TV 보며 맥주 마시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난 사실 허무주의자이고 그동안 살면서 무슨 목표나 계획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하루를 그러저럭 견디 거죠. 그동안 저서를 57권 정도 냈으나 사실 나도 몇 권인지 모르겠고 그것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쓴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외롭고 불안하고 허무해서 그때그때 끄적인 것들입니다. 울 여름 백담사를 찾은 일이 있는데 일주문 이름이 '무급문(無急門)'이어요. 불가에선 지금, 현재도 없는게 무슨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도 이상의 조각이고 집착이고 허망한 것이죠. 그냥 살고 사는 나오는 대로 씁니다.

글=임연태 기자 rian1@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력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